

# 현대 보존 이론을 통해 본 한국 사찰 벽화 보존 사례 연구

이수정 · 한경순

경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 42-1

## Conservation of the Wall Paintings of Buddhist Temples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Conservation Theory

Su-jeong Lee and Kyeong-soon Han

Dept. of Conservation of Cultural Assets, Kyongju University  
San 42-1 Hyohyun-dong, Gyeongju, Gyeongbuk 780-712, Korea

### 1. 머리말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현대의 보존이론들은 전대의 이론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고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각 문화재의 재료적 특성과 보존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을 다루면서 진보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찰에 남아있는 불교벽화들은 역사적·미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도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공간에서 예배적·장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보존이론이 논의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현대보존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먼저 정리하고, 한국사찰벽화보존처리사례 중에서 무위사 극락전 벽화(無爲寺 極樂殿 壁畫), 보광사 대웅보전 판벽화(普光寺 大雄寶殿 板壁畫),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 벽화(金山寺 彌勒殿 壁畫)의 보존 처리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 사례에 나타난 현대 보존 이론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현대보존이론의 주요 쟁점들

20세기 중반 이후 체사르 브란디, 폴 필립보 등 많은 보존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대에 제시된 비오레르듀크, 존 러스킨의 이론이 지닌 장점을 수용하고, 보다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대보존이론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주요 테마

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문화재의 원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역사적인 흔적을 존중하여 각 시대의 철학과 미감을 반영하는 첨가나 변형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개념이 이미 자리잡고 있지만, 이보다 한 걸음 나아가 역사적인 흔적을 어느 부분까지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벽화에 있어서는 무위사 벽화와 같이 목조건물이 후대에 보수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벽 위에 새롭게 화벽(畵壁)을 만들어 보수 당시의 미감을 반영하는 벽화를 그린 경우에 원래의 그림과 그 위에 후대에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이에 해당되며, 부석사 조사당(祖師堂) 벽화들과 같이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된 부분을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어떤 문화재를 누구를 위해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많은 문화적 유산 중에서 보존 대상을 선정하고, 보존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수많은 사찰벽화 중에서 벽화보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존 상태의 심각성, 미학적·종교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위치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보존과 활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현대적인 가치를 개발하여 적정수준에서 활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시켜 후대에 안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두 가지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사찰벽화는 종교적인 내용을 도해하여 현재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장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들을 논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 서술한 현대보존이론의 주요 쟁점들은 보존에 있어서 각각의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사찰벽화보존사례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은 독립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존과 활용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테마는 어떤 문화재를 누구를 위해 보존할 것인가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활용의 문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활용이 될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테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존과정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찰벽화 보존처리사례 중에서 무위사 극락전 벽화, 보광사 판벽화,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사례에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의 보존처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대이론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현대보존이론을 통해 본 한국 사찰벽화보존사례

한국사찰벽화가 근대적 의미에서 보존처리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지만 사찰벽화를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보존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표 1. 한국사찰벽화보존처리공사 총 목록

사찰 전각명	처리기간	처리내용
1 無爲寺 極樂殿	1956	후불벽화와 측벽화를 제외한 모든 벽화 분리
	1974	측벽화에 대한 보존처리
	1979	측벽화 분리 후 보호조치
	1983~1985	후불벽화, 측벽화, 포벽화 균열부 보강, 채색층 정리
2 花巖寺 雨花樓	1981	벽체 균열부 접착, 경화처리
3 水多寺 冥府殿	1981	벽체 균열부 접착
4 大原寺 極樂殿	1982	벽체 균열부 보강 및 안료층 보강
5 佛影寺 應眞殿	1984	해체 후 원위치에 올림
6 觀龍寺 藥師殿	1984	해체 후 원위치에 올림
	2001	해체 후 원위치에 올림, 균열부위와 박락부위 보강
7 興國寺 無私殿	1984	해체 후 원위치에 올림
8 浮石寺 祖師堂	1985	보관중인 벽화에 대한 세척 및 균열부위 보강
9 華嚴寺 覺皇殿	1986	건물실측조사 시 세척, 퇴락상태 심한 벽화 보강
10 新興寺 大光殿	1989	균열부위메꿈, 안료층 보강
	2001	선대의 보강제 제거, 균열부위 및 안료층 보강
11 金山寺 彌勒殿	1992~1993	해체, 균열부위 메꿈, 채색층 고착 후 원위치에 올림
12 松廣寺 觀音殿	1993	전각 전방으로 이동 후 벽화 균열부위 메꿈
13 普光寺 大雄寶殿	1993	개칠 후 채색층 보강
14 大谷寺 大雄殿	1996~1997	해체 후 채색층 고착, 원위치에 올림
15 雙磎寺 大雄殿	1998	세척, 균열 및 박락부위 보강
16 來蘇寺 大雄殿	1999	세척, 균열 및 박락부위 보강
17 定慧寺 大雄殿	1999~2000	세척, 균열 및 박락부위 보강
18 美黃寺 應眞堂	2000	손상심한 벽화 분리 및 채색층 보강
19 銀河寺 十王殿	2000	보관중인 벽화 세척, 균열부위 메꿈, 안료층 보강
20 鳳停寺 大雄殿	2000~	해체 후 보존각에 보호, 보존처리 작업 진행 중
21 花巖寺 極樂殿	2001~	해체 후 보존처리작업 진행 중

수 있다. 1979년에 무위사 극락전의 측벽화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1956년에 먼저 분리해 놓은 포벽화들과 함께 1980년 이후 보존처리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년간 모두 20여 군데의 사찰벽화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무위사 극락전 내부의 벽화는 1956년에 후불벽화(後佛壁畫)와 동서 측벽화(側壁畫)를 제외한 모든 벽화를 분리하여 보관해 오다가 1974년 보존처리 하고, 1979년에 다시 측벽화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1980년대 초에 후불벽화, 측벽화, 포벽화를 모두 보존처리 하였다. 1956년 보존처리과정에서 벽화 밑에 15세기에 그려진 원래의 그림이 발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한 벽면에 그려진 두 층의 벽화를 분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원형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온 것은 건물의 연대와 동일한 벽화를 되찾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후대의 첨가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원형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대보존이론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벽화가 건물에서 분리되어 종교적인 기능이 감소되어 하나의 회화 문화재로 보존각에 진열된 상태에서 이 두 층의 벽화를 분리하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존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철학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한 사회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존각에 진열된 벽화들은 보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광사 대웅보전 외부의 판벽화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나무 위에 그려진 판벽화로 1993년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개질이 이루어졌다. 보수 당시 벽화는 그 내용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이를 근거로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하는 형식으로 선명하게 개칠하였는데 보수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벽화는 안료층이 모두 균열되어 목판(木板)에서 분리되어 곧 박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 당시 원래 그림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보다는 종교적인 기능을 위해 희미한 그림의 완형(完形)을 회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보존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여 보존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현재에는 개칠 된 그림이 균열·박락되어 예배와 장엄이라는 종교적인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산사 미륵전 벽화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1층의 벽화는 제자리에서, 그리고 2층과 3층의 벽화는 건물에서 분리하여 보존처리 한 후에 다시 원위치에 올렸다. 당시 2층과 3층의 벽화 중에서 손상상태가 심각한 벽화들에 대해서 '스트라포(strappo)'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다. 즉, 채색층을 얇게 남기고 채색층을 받치고 있는 벽체의 흙을 일부 제거하여 흙보다 가벼운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보존처리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

술의 도입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벽화에 대해 다시 보존처리 하는 과정에서 전대의 스트라포 방식을 원형에 대한 무리한 변형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브란디의 이론에서와 같이 이미지와 보조적인 구조물과의 분리개념을 적용하여 이미지에 가시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은 보존처리로 간주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건물과 벽화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현대 보존이론의 주요 쟁점들 중에서 보존과 활용 사이에서의 균형, 그리고 원형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무위사 극락전 벽화, 보광사 대응보전 판벽화,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 벽화의 보존처리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벽화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벽화는 외부에 노출되어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토벽으로서 목조건축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벽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보존방향과 기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보존이론의 주요 쟁점들은 이들 쟁점들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기 보다는 보존처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제시하고 각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에 알맞은 원칙을 찾아나가는 논리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찰벽화 보존에 알맞은 합리적인 이론과 원칙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이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찰벽화보존처리에 있어서 보존방향과 절차, 그리고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원칙을 선택하기 위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esare Brandi, trans. Gianni Pontii, "Theory of Restoratio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Paul Philippot, "Rest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in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6.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문교부, 1958.  
『강진 무위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4.  
『'89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경기도, 1989.  
김봉건, 「문화재보수이론」, 『문화재』 25, 문화재관리국, 1992.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보고서』, 전라북도 · 한국미술사학회, 1993.